

작은자공동체

The Least of These Church



일시: 2016 년 8 월 21 일 (주일) 오후 3 시

장소: Judson Memorial Church, Garden Room

모이는 곳: Garden Room, Judson Memorial Church

55 Washington Square South New York, NY 10012

함께하는 이들: 공동체가족과 김동균목사(Rev. Tong-Kyun Kim)

tongkyun@gmail.com / 917-622-2471

<http://www.judson.org/TheLeastofTheseChurch>

작은자공동체 예배순서

2016년 8월 21일(주일) 오후 3시

사회: 김동균 목사

묵상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 다함께

"빈 의자" (시, 최원정 - 낭독: 해나)

한 마음 한 노래 (시) ----- 다함께

"연탄 한 장" (시, 안도현 - 낭송: 장동인)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 김동균 목사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3,15-18 & 고린도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12,4-20

화두: "예수의 조력자(assistant, helper, supporter)를 자처한 요한,

살아가면서 조력자의 역할이 주어진다면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

한 마음 한 노래 (시) ----- 다함께

"홀로 무엇을 하리" (시, 홍관희 - 낭독: 단열)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 다함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노랫말: 김남주 & 노래: 안치환 - 다함께)

사람 뜻 올리기(기도) ----- 다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빈 의자

조금 힘들면
쉬었다 갈 수 있는
빈 의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당신의 휴식을 도와 줄
그런,
편안함이었으면 싶습니다

내 마음이
여유로운 공간으로 남아

그대
잠시라도 머물러
새로운 희망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고 싶습니다

당신을 위한
빈 의자

(시, 최원정 - 낭독: 해나)

한 마음 한 노래 (시)

연탄 한 장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 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시, 안도현 - 낭송: 장동인)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3,15-18 & 고린도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12,4-20

화두: "예수의 조력자(assistant, helper, supporter)를 자처한 요한,

살아가면서 조력자의 역할이 주어진다면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

일자: 2016 년 8 월 21 일

<누가복음서 3,15-18>

3:15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터였으므로 요한을 보고 모두들 속으로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3:16 그러나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머지않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실 분이 오신다. 그분은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3:17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3:18 그 밖에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권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였다.

3:15 The people were waiting expectantly and were all wondering in their hearts if **John might possibly be the Christ**. 3:16 John answered them all, "**I baptize you with water. But one more powerful than I will come, the thongs of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untie.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with fire.**" 3:17 His winnowing fork is in his hand to clear his threshing floor and to gather the wheat into his barn, but he will burn up the chaff with unquenchable fire." 3:18 And with many other words John exhorted the people and preached the good news to them.

<고린도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12,4-20>

12:4 은총의 선물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12:5 주님을 섬기는 직책은 여러 가지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12:6 일의 결과는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12:7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12:8 어떤 사람은 성령에게서 지혜의 말씀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으며 12:9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믿음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병 고치는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니다. 12:10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직책을, 어떤 사람은 어느 것이 성령의 활동인지를 가려내는 힘을,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그 이상한 언어를 해석하는 힘을 받았습니니다. 12:11 이 모든 것은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나누어주십니다.

12:14 몸은 한 지체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12:15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딸리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해서 발이 몸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12:16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딸리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해서 귀가 몸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12:17 만일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12:18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뜻대로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지체를 우리의 몸에 두셨습니다.** 12:19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것이라면 어떻게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12:20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12:4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gifts, but the same Spirit. 12:5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service, but the same Lord. 12:6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working, but the same God works all of them in all men. 12:7 Now to each one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is given for the common good. 12:8 To one there is given through the Spirit the message of wisdom, to another the message of knowledge by means of the same Spirit, 12:9 to another faith by the same Spirit, to another gifts of healing by that one Spirit, 12:10 to another miraculous powers, to another prophecy, to another distinguishing between spirits, to another speaking in different kinds of tongues, and to still another the interpretation of tongues. 12:11 All these are the work of one and the same Spirit, and he gives them to each one, just as he determines.

12:14 Now the body is not made up of one part but of many.12:15 If the foot should say, "Because I am not a hand, I do not belong to the body," it would not for that reason cease to be part of the body.12:16 And if the ear should say, "Because I am not an eye, I do not belong to the body," it would not for that reason cease to be part of the body. **12:17 If the whole body were an eye, where would the sense of hearing be? If the whole body were an ear, where would the sense of smell be?** 12:18 But in fact God has arranged the parts in the body, every one of them, just as he wanted them to be.12:19 If they were all one part, where would the body be?12:20 As it is, there are many parts, but one body.

한 마음 한 노래 (시)

홀로 무엇을 하리

이 세상에 저 홀로 자랑스러운 거
무어 있으리
이 세상에 저 홀로 반짝이는 거
무어 있으리
흔들리는 풀잎 하나
저 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서있는 돌멩이 하나
저 홀로 서있는 게 아니다

멀리 있는 그대여
행여
그대 홀로 이 세상에 서있다고 생각하거든
행여
그대 홀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우리 함께 어린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자

밥그릇 속의 밥알 하나
저 홀로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없고
사랑하는 대상도 없이
저 홀로 아름다운 사람 있을 수 없듯
그대의 꿈이 뿌리 뺏은 이 세상에
저 홀로 반짝이며 살아있는 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나니.

(시, 홍관희 - 낭독: 단열)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함께가자 우리 이길을

김남주 시
변계원 곡

C Am F D⁷ G

함께가자우리 이 길을 투쟁속에동지 모 - 아

C Am Dm G⁷ C C⁷

함께가자우리 이 길을 동지의손맞잡고 가로

F C Am E Am

질러들판 - 산이라면여기여차넘어주고 사 -

F C Am Dm D⁷ G G⁷

나운파도 - 바다라면여기여차건 - 너주자

C Am Dm D⁷ G

해떨어져어두운 길을 서로일으켜주고 가다

C E Am Dm D⁷ G G⁷

못가면쉬었다가자아픈다리서로기대며 함께

C E Am Dm⁷ G⁷ C

가자우리 이 길을 마침내하나됨을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하느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가진 자들의 횡포와 착취가 만연하고
그것이 체제화되어 갖가지 악과 범죄가 만연하여 힘없는 이들은 무방비로 노출되고
그러한 악과 범죄에 피해자로, 방관자로, 가해자로 살아갈 수 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내 안에도 있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 자기중심적인 태도, 가식, 거짓, 질시,
욕심, 욕망, 교만, 악한생각 등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세상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슬프게 하지만,
때론 그런 내 자신과 세상의 모순을 무시하고 포기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느님,
그런 내 자신과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내 자신과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 내 자신과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결국 하느님의 진리와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느님,

그러다 우리가 유혹과 욕심에, 때론 시련과 한계에 부딪혀 실패하거든
꺼져가며 연기 피우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불길을 다시 살리신다는
그런 당신의 사랑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힘을 주옵소서

우리 서로 간에, 또한 고난 속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며 필요한 것들을 서로 채워주고
보살핌의 수고를 기꺼이 하는 그런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로가 삶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의 희망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뒤에는 우리 서로가 든든히 버티고 있음을,
그런 우리 뒤에는 하느님이 든든히 버티고 계심을,
그러한 든든함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힘있게 사랑하고 기쁘게 희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